



컨설팅학과 이야기

백승현 주임 교수님 인사말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 1학기부터 학과 주임교수를 맡게 된 교수 백승현입니다.

경영 컨설팅은 경쟁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 계획을 개발 및 제안하여 주는 실무입니다.

경영 컨설팅은 외부로부터 제안된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문제 해결 대안과 틀을 이용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대부분의 컨설팅 서비스는 대규모 기업의 수요를 중심으로 소수의 국외 컨설팅 회사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도약의 기회를 찾는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는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양대학교는 대규모 기업의 수요에 편중 되어있는 컨설팅 산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컨설팅 서비스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컨설턴트 양성을 목적으로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중심의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 및 컨설팅 연구개발 체계 구축이라는 국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컨설팅기업과 국내 최고 수준의 컨설팅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 연구, 인턴, 채용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학과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영컨설턴트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양대학교 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는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경영컨설턴트의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학과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컨설팅학과
주임교수 백승현



이정현 박사과정(경영컨설팅학과 원우회장) 인터뷰

현재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원우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정현 박사과정께서 학위 과정을 진행 중인 원우분들을 위하여 인터뷰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정현 박사과정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 박사3기 이정현입니다.

2. 경영컨설팅학과 원우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가요?

저는 경영컨설팅학과 원우회 회장을 맡고있습니다. 2021년 코로나상황으로 대면이 여의치 않아 원우회 활동도 무색하였습니다. 이번 학기는 위드코로나로 상황이 전환되어 대면이 가능해진 만큼 좀 더 활성화되길 저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어떻게 한양대학교 경영컨설팅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타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화 지원을 하면서 기업 현황 파악, 프로그램 기획, 전략 제시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박사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 학위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으셨나요?

1학기는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보니 정보를 얻거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위과정이 IC-PBL 형태임에도, 기업 인터뷰 뿐만 아니라 팀 활동도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2학기부터 대면강의로 전환되어 교수님과 학우들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학기 중엔 수업 쫓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데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다보니 현재 연구가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걱정이 됩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갈 생각입니다.

이정현 박사과정(경영컨설팅학과 원우회장) 인터뷰

5. 특별히 기억에 남거나, 연구에 도움이 되었던 수업이 있을까요?

진학동기와의도 맞물리는데 저는 수업을 주로 컨설팅, 기업가치평가, 재무회계 관련 수업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수업과 제 업을 연결해서 들었더니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실무에 연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현업에서 매칭되는 기업들도 창업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특히 창업 기업은 자체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실제 역량보다 부풀리는 기업도 많아서 기업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전문성을 키우고자 노력 중입니다.

6. 올해 계획 중인 원우회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신입생 및 재학생 간 간담회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원우회를 통해 작은 소통 창구로 시작해서 하나의 커뮤니티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스승의 날에 교수님들을 위한 선물이나 이벤트를 함께 준비해볼까 합니다. 원우회 학우분들께서도 바쁘시겠지만 저를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OKR, 평가 도구로 전락한 MBO의 대안으로



한때 성과 관리의 정석처럼 여겨졌던 MBO(Management by Objectives)와 BSC(Balanced Score Card)가 성과 관리보다는 성과 평가 도구로 전락하면서 그 대안으로 OKR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OKR는 목표(Objective)와 핵심 결과(Key Result)로 구성된 목표 관리 프레임워크로 조직적 차원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OKR는 기존 MBO에 비해 원대한 전사 목표를 수립하고 개별 사업부나 팀의 목표를 이 전사 목표와 정렬해 조직이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 몰입하고 집중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목표 설정을 Top-down 방식이 아닌 bottom-up 방식으로 설계한다는 점과 점검 주기가 분기나 반기로 짧다는 것이 대표적 특징입니다.

OKR는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이뤄가는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Objective’와 ‘Key Result’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목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의미하고 핵심 결과는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구글 창업 초기 OKR를 구글에 소개하고 실행을 이끈 전설적인 벤처캐피털리스트, 존 도어 클레이너 퍼킨스(Kleiner Perkins) 회장은 OKR을 “조직 전체가 동일한 사안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체계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집단이라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기업은 전체로서 조직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때문에 훌륭한 소수의 개인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목표를 이뤄내는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OKR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최소한 OKR가 스스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3가지 요소가 ‘리더십의 OKR에 대한 이해’ ‘기존 평가 제도와와의 관계 정립’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공적인 OKR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다.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가로막는 4가지 실수



선형 방식에서 순환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것은 조직이 가치를 창출하고 포착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재고해야 하는 대담한 작업입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5개의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 개발, 실행했는지를 연구한 결과 성공적인 모델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4가지 주요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생태계 내 파트너들의 인센티브와 동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생태계를 뛰어넘은 파트너십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고객이 깊숙이 관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연장된 실행 기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잘못된 수준의 오류 (fallacy of the wrong level)과 소유 효과 (endowment effect)라는 두 가지 편향이 의사 결정에 작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각 도전과제별 걸림돌과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다.



AI 마저 AI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9단과 대국을 펼쳐 전세계를 놀라게 만든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AlphaGo)’를 기억하시나요? 이 세기의 대결은 NFT 시장에서 60이더리움(약 2억5020만원)에 최종 낙찰될 정도로 인공지능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알파고를 개발한 영국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회사 딥마인드(Deepmind)가 이달 2일(현지시간) 회사 블로그를 통해 코딩하는 인공지능(AI) 알파코드(AlphaCode)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딥마인드는 알파코드의 성적에 대해 우승과 거리가 먼 성적이지만,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작업에 대한 딥러닝 모델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발전이며 이는 시작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구현해주는 도구가 될 수도, 대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른 코딩 AI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시다.



연구소 및 대학원 3월 일정

날짜	내용	비고
03월 02일(수) ~ 04월 28일(목)	석·박사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입력	HY-in
03월 02일(수) ~ 05월 12일(목)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신청 접수	HY-in/ 단과대학 행정팀
03월 02일(수) ~ 05월 26일(목)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 접수 / 논문심사위원 변경 신청 접수	HY-in/ 단과대학 행정팀
03월 02일(수) ~ 06월 16일(목)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제목수정	HY-in
03월 04일(금) ~ 03월 11일(금)	지도교수 변경 신청	HY-in
03월 04일(금) ~ 03월 18일(금)	1학기 종합시험 접수	HY-in
03월 04일(금) ~ 06월 16일(목)	석·박사 학위청구논문 심사	
03월 07일(월) ~ 03월 09일(수)	1학기 수강신청 최종 정정	HY-in
03월 07일(월) ~ 03월 11일(금)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자 박사학위포기신청	HY-in
03월 19일(토)	1학기 외국어 시험	별도 주관
03월 28일(월) ~ 04월 20일(수)	2022학년도 후기 외국인전형 신입학 원서접수	국제처 주관
03월 29일(화) ~ 04월 12일(화)	1학기 중간 강의평가 기간	HY-in



[End of Document]